

# 빌 마운스 박사, 산상 설교, 강의 2, 행복, 2부

© 2024 빌 마운스 및 테드 힐드브란트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행복, 2부입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행복을 살펴보겠습니다. 황금 사슬을 보고 이 모든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승인은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1절. 이것은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식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애도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신의 타락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좋은 칼빈주의 용어입니다, 밥.

밥은 내가 정말 개혁되었는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타락한 사람, 자신의 영적 빈곤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애도할 거야. 사슬은 행복의 말씀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야.

사슬을 더 내려가면, 오, 자비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자비를 베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사슬의 중간에서 시작해서, 오,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타락, 영적 빈곤에서 시작해서 사슬을 따라 내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애도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당신의 영적 빈곤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도는, 교회가

잊어버린 무언가입니다. 대부분 애도합니다. 마이클 카드의 책을 보셨나요? 아마 10년 된 책일 겁니다. 애가에 대한 책입니다.

가수 마이클 카드. 애도에 대한 정말 좋은 책이고, 죄에 대한 애도를 교회로 다시 가져오라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애도가 없다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죄를 인식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신이 누구인지를 본다면, 당신은 애통해하고, 애통해해야 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일어나는 유일한 일이라는 겁니다. 네, 네.

네, 저는 대부분, 네, 우리가 사제직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개인적인 애도의 개념에서 벗어났지만, 공동 애도도 있습니다. 공동 애도 시편이 있고, 저는 단순히 여러분의 교회가 매년 300만 명의 태아를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해 애도해야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문화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애도해야 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기업의 애도는 개인적인 애도에서 시작하지만, 기업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할 때 다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애도나 애통은 죄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길 권합니다, 당신은 그저 신과 동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신이 모르는 것을 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애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옳고 당신이 옳지 않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로 애도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해, 참된 애도, 참된 애통은 행동에서 성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내가 구속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고, 화해를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있고, 나는 죄의 지배가 깨졌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나의 일부가 있습니다. 바울은 매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죄를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설교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맞죠? 당신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아주 오래된 성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위챗을 사용합니다. 그 앱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것은, 그것은 음성 텍스트에 더 가깝고, 문제는 정부가 위챗을 사용하여 국민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챗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소통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또는 사흘 전에 친구에게서 WeChat 메시지를 받았고, 그는 제가 의로운지 죄인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제가 대답하는 방식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중국 교회는 매우 죄책감에 시달리고 성과에 기반한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범위한 일반론입니다. 우리는 중국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과제입니다. 그들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글쎄요, 회심하기 전에는 당신은 죄인이었습니다. 회심한 후에는 의롭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 대한 지배력이 깨졌습니다.

그는 ”개종 후에도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라는 기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은 신앙의 위대한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칭의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화해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은,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변화시킨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그저, 실패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쓴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죄의 지배가 깨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죄는 여전히 내 성격의 일부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고, 제 성격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종의 신학적 보호장치가 되어서,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죄에 대한 지배력이 깨졌습니다.

내 캐릭터와 단절된 것은 내가 하는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내 캐릭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죄를 짓는 것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로 옮겨갑니다.

셋째, 진정한 애도는 내가 신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도는 거기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맷에게 무언가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받았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죄는 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니요, 다만 제가 의롭다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죄를 지으심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용어가 귀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신학적으로 나는 의롭습니다. 그래서 부르심 은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 행동하고, 의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글쎄요, 더 나은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구원받았지만, 존 번연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그의 아들을 보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고, 그의 아들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가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말은,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부름은 그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위치적 성화와 경험적 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거룩하다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위치는 성인이며, 경험에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어떻게 이 큰 악을 다시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말합니다. 맞죠? 그는 죄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있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는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51편이 가장 좋습니다. 당신에게, 이것은 나단이 뱃세바에 대해 다윗을 대면한 후 다윗이 고백한 시편입니다.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눈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은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당신은 몇몇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궁극적으로 모든 죄는 신에게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울부짖음에서,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당신께,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행동, 성격,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백만 가지나 있겠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지만, 아시다시피, 애도에 대한 토론이 나올 때 제가 묻는 것 중 하나는 “죄를 지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발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이들. 오, 정말 미안합니다.

좋아, 왜 미안해? 내가 잡혀서 미안해? 2주 동안 네 전화기를 빼앗을 거야. 글쎄, 그건 슬픔이 아니야. 그냥 네가 잡혀서 좌절한 거야. 음, 하지만 나는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위엄, 위엄, 경외심,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누군가가 그걸 기억하는 일요일 아침 모임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응원 집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응원 집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많은 교회가 제 죄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게 해주는 응원 집회일 뿐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 지쳐 있습니다.

저는 신이 위엄 있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을 뿐이고, 저는 그렇지 않고, 그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 매우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애도하는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생일 축하를 외치고, 소리치고, 손을 흔드는 것보다 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매우 기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애도. 애도와 나의 지친 상태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오, 마무리해야겠어요. 미안해요.

복이 있나니, 곧 죄를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신성한 수동태가 아닌가? 축복과 모든 행복의 대행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나는 성경에서 당신이 채워지기 전에 비워지는 순환을 좋아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윤리적 가르침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애통함을 아는 자만이 비우는 것이고, 진정으로 위로받는 자, 그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맞죠? 자신의 가난을 영으로 인식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야 합니다. 디도서 3장과 구원. 여러분은 씻겨졌고, 그다음에 거듭났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위로가 언제 오는가입니다. 글쎄요, 이미 오지만 아직은 아니죠, 맞죠? 그것은 당신과 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여전히 우리 성격의 일부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가 신에 대한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위로가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이 없어질 때 올 위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도자이고, 애도자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 경우 모든 것이 사라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정말 멋진 일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적어 놓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걸 사용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서 훨씬 더 빨리 검색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아, 아내가 그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네, 제가 할게요.

우리의 전자성경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공부할 때 여전히 종이를 원해요. 하지만, 그냥 도서관 전체를 여기 두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요: Logos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흥미롭네요. Accordance? 한 명이에요. 좋아요.

뭐요? BibleWorks? BibleGateway. 네. BibleGateway를 사용하시나요? 네, 선생님.

좋아요. 알았어요. 응, 응.

저는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BibleGateway에서 1년 일했고, 그것은 매혹적인 1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BibleGateway에서 아주 특별한 번역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 번역?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1. 4. 오, 미안해요. 잘못된 언어입니다. 이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거룩한 도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며,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실제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4절이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 질서는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함이 더 이상 없는 시점이 올 것이고, 그것은 좋은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위로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그 축복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이 있나요? 제가 예배에서 좋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침례교회에서 목회했는데, 침례교인들은 예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반응성 있는 독서를 하게 할 수 있다면 꽤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가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 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어떤 일요일에는 첫 곡이 죄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는 용서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전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고른 노래에서 전례적 주제를 순환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침례교도들이 전례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다소 까다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좋아요, 글쎄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들이 애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5절의 세 번째 복된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참함과 수치 속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NIV입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온유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반문화적 진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요?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예수의 경제에서, 천국의 왕국에서, 온유한 자들은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습니다. 온유함.

온유함은 정말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사실, 온유함은 그것이 무엇인지보다 그것이 아닌 것을 정의하는 것이 더 쉬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온유함은 소심함, 두려움, 우유부단함, 확신 없음, 벽초, 우유부단함 또는 약함이 아닙니다. 세상은 온유함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다른 종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알지 못하므로, 하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독특한 기독교적 특성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정의하고, 책에서 나오는 두 가지로 정의해요.

그것은 태도이자 행동이며, 둘 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황금 사슬을 기억하세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이해하고 따라서 오만함과 자부심을 위한 자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Quarrels*는 제가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한 책 중 하나로, 다시 한 번 정말 느리게 시작해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당신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좋습니다. 시작 방식은, 예수가 새로운 모세라는 것에 대한 40페이지를 원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계속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있나요? *Quarrels*, *QUARLE*이에요. 그는, 어디에 있나요? 부사장, 네, 어떤 학교인가요? Louisiana College, 아마 Louisiana에 있을 거예요.

어쨌든, *Quarrels*라고 할게요. 그의 이름을 말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Deep South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Quarrels?* *Quarrels*, 좋아요, 그럼 A를 부드럽게 하고 길게 발음하면 *Quarrels*가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은 학교에 다녔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었나요? *Quarrels*, 좋아요.

봅시다, 하지만 저는 양키라서 모음을 모두 짧고 거칠게 발음합니다. 남부에서는 모음이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음절 단어라면 두 개, 맞아요. 단음절이면 두 개라고 말하고, 다음음절이면 하나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의 이름을 옆에서 말하려고 합니다. 다툼, 다툼. 당신은 거기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달하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마 여러분 대부분보다 더 남쪽에 있을 겁니다.

제 할아버지는 켄터키주 그래블 스위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철도를 위해 자갈을 꺼내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파고, 그것이 그래블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방문했습니다. 애팔래치아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을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건 정말 이상했어요. 모두가 Mount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가 Mounce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말은, 버트 레이놀즈의 영화 Deliverance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세상에, 차에서 내려야 하나요? 그렇죠.

하지만 재밌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학교에 처음 발을 들인 날은 17살 때 선생님으로 일할 때였어요. 부모님은 한 학년의 순회 선생님과 닭을 바꿔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 해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남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 노트에서 어디에 있는가? 오, 그래. 온유한 사람은 영적 파산을 알고 있으므로 오만함과 자부심을 위한 자리가 없다.

Quarrels는 이 단어의 강조점이 복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곳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잘 맞고,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인용하자면, 저항 없이 조용히 신에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슬의 세 번째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이해하게 된 사람이고, 그것은 그들을 애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해 때문에 저항 없이 기꺼이 그리고 온유하게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온유함은 겸손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태도이며,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는 것이지만, 또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한 많은 논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온유함에 대한 논의의 상당수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4-17과 같은 구절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려는 의지입니다. 다시 말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주고,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냅니다. 제가 자주 찾는 구절은 에베소서 4:32인데, 온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요점을 잘 짚어냅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인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맞죠? 그래서, 그것은 인식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절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온유한 사람에 대한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저는 Martyn Lloyd-Jones의 작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통 다른 설교를 읽지 않습니다.

설교는 인격을 통한 진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설교단에서 하는 일을 복제할 수 없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고, 다른 경험의 집합이며, 영의 다른 작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읽는 것이 정말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저는 읽는 데 매료되었습니다. 그냥 읽는 데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본을 깼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건 단권 페이퍼백인데, 몇 달 만에 제본을 깼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갔는데, 아빠가 2권 하드커버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빠한테서 그 두 권을 빼앗으려고 아빠를 때려눕혀야 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 만약 마틴 로이드 존스의 두 권짜리 하드커버를 본 적이 있다면 사세요. 아빠의 책을 받은 이후로는 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설교를 통해 설교할 때, 그가 한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설교의 일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영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와 교회에서 갈등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유함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말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을 듣는다면, 좋아요, 당신이 목사이고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글쎄요, 제 반응은, 알다시피, 당신이 저를 안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권력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설교에 기반한 소그룹을 원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교회에는 모든 목사가 본질적으로 사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사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소그룹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당신은 정말 권력에 빠져 있군요.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 알았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듣고, 온유한 사람은 네,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 알았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양심적으로, 나는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설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것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책 1권 57쪽.

하지만 그게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신학생들에게, 교회에 갈 때 정말 조심하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들이 당신을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을 확실히 겨냥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말했듯이, 정말, 정말 조심하세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 경험 중 일부는 그런 식으로 냉소적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죄의 타락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 애도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대신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온화하고 평화롭게 반응합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렇죠? 제가 찾은 가장 좋은 설명 방식입니다.

온유함은... 따옴표를 붙였으니 누군가 에게서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온유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통제 하에 있는 힘입니다. 온유한 사람,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글쎄요, 좋아요, 예수님.

예수 다음으로 모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겁쟁이는 아닙니다. 온유함은 엄청난 양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것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온유함이 야생마와 길들인 종마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말을 탄 사람 있나요? 말이 많지는 않죠... 요즘은 말을 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말을 한 마리 키웠어요. 제가 처음 말에 탔을 때의 기억이 나요. 힘 이 얼마나 센지... 무섭죠? 근육이 너무 많잖아요.

말은... 각자 고유한 성격이 있어요. 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 무엇을 할지 절대 알 수 없어요.

말은 항상 두 가지 상황에서는 달립니다. 항상요. 언덕을 향해 달리면 멈추지 않으면 달려서 죽죠? 그리고... 헛간 쪽으로 돌리면 달려요. 이 두 가지가 승마에서 가장 위험한 때인데, 동물이 그냥 달려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종마를 다루려면 그것을 깨야 하고, 다른 것들 중에서도 비트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말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그림의 요점은 그 동물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고삐를 간단히 움직이기만 하면 돌지 않습니까? 언덕을 뛰어오를 때 뒤로 잡아당기면 훈련된 말은 멈춥니다.

좋아요, 제 말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훈련된 말은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온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종마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통제 하에 있고, 당신이 방향을 따라 펄쩍펄쩍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시면, 당신은 멈추고, 좌회전하고, 멈추고, 우회전합니다.

훈련된 종마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반문화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온유한 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질문은, 땅이 무엇인가? 오늘날 온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얻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아직 아닌 것, 성취에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질 것입니다. 랜디 알콘의 천국에 대한 책을 읽어보셨나요? 정말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는 아주 크고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동의해서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서 중간에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 구름에서 하프를 튕기는 살찐 큐빗 무리라는 입장에 반대하는데, 이는 어떤 모양이나 방식으로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한 더 작은 요약을 썼고,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그것을 이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기 쉬운 책입니다. 느낌을 줄 겁니다. 하지만 알콘은 새 하늘, 새 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하늘, 새 땅은 매우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나요? 정원, 강, 생명나무, 맞죠? 그리고 하늘, 새 하늘, 새 땅, 생명나무는 너무 커서 거대한 강의 양쪽을 가로지르고, 나라들을 치유하기 위한 과일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치유될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저는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날고 있었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땅의 곡선과 구름이 약간 보였습니다.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륙했을 때 구름이 끼어 있었고, 세인트 헬렌스 산이 보였습니다. 남은 것의 꼭대기, 레이니어, 헬렌스, 애덤스가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저, 그것이 당신에게 이것이 신의 소중한 지구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유일한 때를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한, 예수님이 단 한 번만 화를 내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실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화가 났다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변형이 있지만, 아마도 예수가 화를 냈다고 말할 것입니다. 깊이 감동했다는 뜻의 관련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깊이 감동한 것으로 전환하는데, 그리스어 본문에 강력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화가 나셨지만, 죄에 대해 화가 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가 그의 세상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로 날아와서 지구의 곡률을 보고 있을 때, 저는 화산을 좋아하고, 그냥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와서 워싱턴 중부를 관통하는 모든 관개 원을 볼 수 있고, 당신은, 제 말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은 정말 소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망쳤습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위대한 생태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생태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의 세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아주 천천히 도달하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알콘은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은 물리적 존재입니다. 그는 제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별 여행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매우 물리적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신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로 날아오는 동안 신의 땅에 대한 감사에 훕쓸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모든 것을 고친 후에, 우리는 그곳에서 살면서 돌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돌보고, 물고기를 돌보고, 동물을 돌보고.

우리는 다시 삼림 벌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 말은, 우리는 이곳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콘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는 간다, 여기가 집이야. 지금이 집이야. 영원한 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은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땅은 놀라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돌보아야 할 땅이 될 것입니다.

꽤 멋지죠? 제가 계시록에서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제게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암벽 등반을 하다가 다리를 다치면 아프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리석은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알았어. 알았어.

4번째 복으로 넘어가자, 6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 이 있나니 ,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요, 그들의 배는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라.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그의 도덕적 완벽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에서의 완벽함, 그의 행동에서의 완벽함 말입니다.

그가 어떤 존재이고 하는 모든 일은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신은 의롭습니다. 그는 의로움의 정의죠, 맞죠?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습니다. 신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도덕적으로 완벽한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신의 의로운 성품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입니다 .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산상 설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련된 의로움은 모든 것, 활동, 성격에 있어서 그의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둘째, 우리와 관련된 의로움은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콰를스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격에 따라 사는 것, 그의 행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의에 목마르고 주리고 갈증을 느끼나요? 설교를 한다면, 의에 목마르고 주리고 갈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당신의 사람들은, 오, 대단하군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슬을 만들어야 합니다. 빈곤의 정신,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애통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 그냥 네 번째 복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슬의 처음 세 고리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의 의로움이 당신의 삶에 절실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신학적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읽는 것을 멈췄을 때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처음 고든-콘웰에 갔을 때, 저는 신약성경 조사를 가르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들은 기꺼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좋아하는데, 상위 학년 수업만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사에서 수천만 번이나 조사를 가르쳤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마치 바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항상 바울이 “그래, 그래, 그는 빈곤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맞설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복음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복음서를 읽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을 정의할 때 바울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실 테니까요. 저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해 제가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많고 바울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저는 복음서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의 글에는 의로움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의로움이 되려는 열망.

신은 의로우시다. 그는 모든 도덕적 완벽함에서 옳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애통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절실히 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실히 신의 의로운 성격과 행동에 따라 사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깊은 소망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깊은 욕망. 이건 가르치는 대사라기보다는 설교하는 대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을 갉아먹고 훌쩍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심할 때 한 번 그를 맛보고 평생 짙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갉아먹고 훌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기독교 생활을 관련 없는 사건들의 일련의 거래로 보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그리고 저는 VBS에서 주차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큰 패치워크 퀼트를 사서 제 뒤에 걸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항상 패치워크 퀼트를 삽화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작은 사각형으로 너무 세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이 사각형은 신을 위한 거야, 이 사각형은 신을 위한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내가 밤에 11시 컴퓨터에서 하는 일, 알다시피, 어떤 포르노 사이트, 그건 내 일 외에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아니면 성추행 문제. 그리고 그냥, 허, 나는 Barna를 좋아해.

여러분은 독서를 하시나요? 바나를 보시나요? 이걸 보셨나요? 저는 바나 사이트를 정말 구독하고 싶어요. 그들은 항상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통계를 내놓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중 꽤 많은 것을 인용할 거예요.

포르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만함과 거만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균적인 복음주의자들이 투표를 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실제로 투표에 응답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평균적인 복음주의 목사는 일주일에 한 번 의도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 누가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고 어려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사인 친구와 앉아서 제가 어땠냐고 물었더니, 그는 ”음, 만약 당신의 목적이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정말 잘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다, 좋아, 두 번째 예배 설교를 다시 쓰는 것을 도와줘. 내가 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갚아먹고 훌짝훌짝 마신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낮과 밤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을 갚아먹고 훌짝훌짝 마십니다.

그들은 낮과 밤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나눠주던 작은 트랙은 로저, 그의 집, 그의 집이었습니다.

그게 그 노래였어? 로버트 멍커 ? 그가 그렇게 썼어?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영이 당신의 집을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당신은 문을 닫고, 아니, 그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은 사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집의 모든 문을 열어 모든 것을 그의 집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매우 강력한 트랙입니다.

이제 비디오야. 정말? 아, 꼭 가져와야겠다. 이미지가 너무 좋다니까.

나는 그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축복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정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질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내가 균형을 맞추도록 하자.

우리는, 저는 우리의 장로들에게 파이퍼의 *Desiring God Meditations of a Christian Hedonist*를 읽게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그것은 그의 주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쓰는 모든 책이 그저 그것을 다시 쓴 것이라고 농담합니다.

*Don't Waste Your Life*를 보셨나요? 아직 읽어보셨나요? *Don't Waste Your Life*를요. 좋아요. 그게 최고의 파이퍼 책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졸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주곤 했습니다. 읽기 쉬운 책입니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정으로 삼으라는 간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영향력과 권력을 얻으려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의로움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호소입니다. 그것은 정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저는 조심하고 싶은데, 파이퍼가 구원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장이 4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옥에 간다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배우자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아.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

제가 배우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티터, 피어슨, 헤이든 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참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당신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배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당신이 이런 것들을 알아내려면 당신의 삶에 고통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당신은 내가 로빈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선언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가 다른 모든 것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열정이 되는 최종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글쎄요, 우리 중 누구도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즐기고, 맛보고,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자면, 예수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참을성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양육하고 이 과정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괜찮아요. 저는 그가 잠시 2위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배울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배울 것입니다. 이미,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

이미지는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특히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 밤 가족을 부양할 만큼의 돈을 버는 농업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빵은 중요합니다. 사막 기후에서는 음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과 목마름, 음식과 음료를 사용하여 요점을 실제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제가 여기에 쓴 것처럼 소모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평하게 합시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게 공평한 표현인가요? 제 댓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열정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들이 만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심에 만족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들에 점점 더 몰두함에 따라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직 하늘에서만, 나는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하늘에서 완성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속에서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과정이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그럴 것입니다. 파이퍼는 우리가 너무 쉽게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종종 덜한 것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정의 대부분은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좋아요, 말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제가 내린 은유는 인생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졸업식에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NIV에 가입한 이유 중 하나는 걷기의 은유를 다시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TNIV에서 걷기의 은유를 몇 가지 없앴고, 2011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행 중이라는 생각에는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여행하고 있으며,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정말 강력한 이미지이고, 교회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삶은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이며, 우리는 용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 취한 운전자가 가족 3명을 죽인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용서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같은 것조차도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나요? 우리 중 누구도, 단 한 사람만 용서한 적이 없고,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는 진심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정말로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그것을 더 확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여정 이에요 . 과정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주시죠. 사실 저는 책을 쓰고 있어요.

5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일련의 경험을 거쳤는데, 영적으로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할 겁니다. The Path라고 불리며, 태평양 북서부에서 13번 하이킹을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 길, 그리고 삶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Life is a Journey 라고 부르려고 했지만 , 결국 우리는 그것을 성경 훈련 수업 중 하나의 제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순환을 믿는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점점 더 깊어지는 순환 속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법률적인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행복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결국 우리가 될 사람인지입니다. 그것이 제가 예수님의 윤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걷습니다.

가난, 애도, 온유, 굶주림. 이것이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음, 우리는 8개 중 4개를 마쳤습니다. 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궤도에 올랐어요. 잠깐 쉬자고요. 점심 먹으러 갈게요.

그리고 1:30에 다시 옵니다. 대럴, 맞나요? 알겠습니다. 그럼 1:30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산상 설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빌 마운트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행복, 2부입니다.